

敎養敎育 課程의 比較 研究

趙 義 淑*

- I. 序論
- II. 外國의 大學敎育
 - 1. 美國의 敎養敎育
 - 2. 英國의 大學敎育
 - 3. 뉴질랜드의 大學敎育
- III. 韓國의 敎養敎育
- 1. 六個 基督教大學의 敎養敎育 課程 比較
- 2. 一般 大學의 敎養敎育 學點 配定 比較
- 3. 崇田大學校의 敎養敎育 課程
- IV. 展望과 提言
- V. 結論

I. 序 論

大學敎育의 質에 관한 비판은 近來에 이르러 현저하게 關心을 모으게 되었다. 大學人口의 增加, 高度의 知識의 가속적인 팽창, 고등학교까지의 敎育內容의 深化, 國家發展을 위한 高級人力의 확보 문제 등이 大學敎育에 대하여 정면으로 挑戰해 오고 있다. 이러한 挑戰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며 敎育改善을 위한 努力을 制度的, 內容的, 運營的인 면에 경주해야 하게 되었다. 특히 “학문이 무엇이며 법칙의 발견이 무엇이며, 진리의 탐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 학문의 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또 우리 자체의 학문 추진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양敎育은 강조되어야 하며, 교양 敎育의 목적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¹⁾

한편 專門敎育과 敎養敎育中 어느 것에 力點을 두느냐 하는 것은 敎育史上 오랫동안의 논쟁점이며 各 大學의 特性化의 核心이기도 하다.

이에 崇田大學校에서는 實驗大學으로서의 學事改革過程의 일환으로 금년도 (1979학년도)부터 교양敎育 위원회를 發足시켰다. 이것은 1976학년도부터 실시한 교양敎育 과정의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교양敎育 연구위원회의 發展的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敎養敎育 委員會는 敎養敎育의 理論的 研究와 實際的 運營을 研究 實踐해 보려는 努力을 하기 위함이다.

우선 첫 단계로 外國 몇 나라의 고등敎育 개선운동의 동향을 주로 敎養敎育에 主眼點을 두

* 文理科大學(서울) 敎授

1) 정 범모, 대학에 있어서의 전공과 교양敎育, 전국대학 교양부장 협의회 강연 및 회의록 pp. 4~5

고 고찰해 보고 韓國의 6개 기독교 대학과 7개 實驗大學의 실체를 비교해 본 후 崇田大學校의 敎養敎育 課程의 內容을 제시하고 展望과 提言을 하기로 하겠다.

Ⅱ. 外國의 大學敎育

1. 美國의 敎養敎育

美國 大學의 경우는 西歐 大學敎育의 機能인 知識의 獲得과 傳達 즉 研究와 敎育을 使命으로 한 두 가지 機能外에 知識의 應用 즉 社會와 國家에 대한 奉仕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機能을 發展시켰다.²⁾

美國 大學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17·8 세기에는 하바드大學을 위시한 각 대학이 敎師 養成을 目的으로 하였다. 初期大學의 敎養 必須科目은 藝術과 科學의 基礎科目이었고 그것을 四年間에 걸쳐서 이수해야 했으며 語學과 數學은 敎育 받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科目이었다.³⁾ 19세기 초의 대학교육은 時代的 社會的 要請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전공 준비敎育을 위한 敎養敎育이었다. 그러다가 점점 일반 교양敎育이 사라지고 전공 준비 敎育이 文理科 敎育課程에서 大部分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혼련 과정안에 흡수되었다.⁴⁾ 19세기 중엽에는 고등敎育의 대중화가 추진되고 지식의 응용을 大學의 理念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後期에는 産業發展에 자극되어 고등敎育을 받은 人材를 大量으로 요구하게 됨에 따라 전공과 교양의 구별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美國의 고등敎育은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공 학생들과 文理科 學生들에게 널리 敎養科目을 이수하도록 요구했으며, 여러 다른 分野의 概論까지도 교양과목으로 부과시켰다. 日常生活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世界情勢나 技術科學의 變遷은 學科中心體制를 초월하여 융통성 있고 포괄적인 敎育을 받은 사람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말미암아 학문 계열별로 敎育과정의 改編되고 또 새로운 학과목을 개발하는 등 敎育과정 개선 운동을 促進시키게 되었다.⁵⁾

美國 컬럼비아大學의 敎養科目研究會에서는 1917년에 “현대문명”이란 과목을 창설하였고, 1919년에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추가하였다. 그 目的은 西歐의 傳統과 變창하는 學問世界에 관한 共通된 知的 經驗을 갖게 하는 데 있었다.⁶⁾ 1949년에 이르러 하바드大學은 人文·

2) 李鐵柱, 미국의 고등敎育과 교양敎育, 전계서 p. 10

3) Russell Thomas, Is General Education Complementary or Preparatory to Specialized Education?, *The Association for General and Liberal Studies*, (Michigan: East Lansing, 1962), p. 18

4) S. J. French, The Academic Status of General Education, *The Association for General and Liberal Studies*, (Michigan; East Lansing 1962), p. 9

5) French, op. cit., p. 10

6) Daniel Bell, *The Reforming of the General Education 1966*, (1976년도 실험 대학 연구보고서, 이화대학편 p. 366 再引用)

社會·自然科學의 세 분야를 共通 이수과목으로 요구하게 되었다.⁷⁾

1974년에 이르러 하바드大學의 문학부장 H·로소프스키는 教養教育 改革案을 내어 놓고 教授會에서 修正 通過시킴으로써 教養教育의 새로운 方向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 骨字는 中核 教育課程(Core Curriculum)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종래의 교양교육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⁸⁾

- (1) 하바드大學의 現行 自由放任主義 教育에 대한 비판
- (2) 學生의 教科目 선택 결정의 고민 문제
- (3) 人間教育의 均衡성 결함
- (4) 共通 學習經驗의 결여 등이다.

이 改革案의 內容으로서 20세기 잔여 기간을 살아가는 教養人 양성을 위한 大學教育의 目標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명쾌하고 效果的인 思考와 文章 作成力
- (2) 人間·社會·宇宙에 대한 知識 理解 및 그 응용력을 위한 비판력과 객관적 시야—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역사·사회과학·철학·물리·생물·수학 등 여러가지 소양이 필요하다.
- (3) 外國의 言語와 文化에 대한 理解—主로 非西方 世界에 대하여
- (4) 道德·倫理에 대한 思考와 體驗 즉 倫理的 判斷力—철학 학습의 不可避性을 말함
- (5) 전문과목의 중시 등이다.

당초는 6개 항목이었으나 1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그 내용은 훌륭한 태도(Manner)와 고도의 심미적 도덕적 수준을 갖는 것이며 허위적인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감수성(Sense)을 가지며, 자기의 견해를 合理的으로 說明 反映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中核 教育課程의 이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文學 및 藝術 分野
- (2) 歷史 分野
- (3) 社會的 哲學的 分析 分野
- (4) 科學 및 數學 分野
- (5) 外國의 言語 및 文化 分野 등이다.

7) Harvard Committee,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1945 (전제서 p.366 再引用)

8) 하바드大學의 教養革命, 週刊朝鮮 No.522. 1979. 1.28.

2. 英國의 大學教育⁹⁾

영국에서는 오랜 傳統과 慣習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학”이 地方都市를 中心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大學은 獨立의인 學位授與의 권한을 가지고 地域의 特性에 맞도록 교육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담한 시도는 젊은 영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7개 大學의 新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새로운 대학”에서는 英國의 傳統的 教授制度가 “두뇌 유출”을 가져오게 되고 승진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多數의 教授制度和 윤번제로 의장을 맡는 美國式 組織委員會制度를 채택함으로써 國家的 要請에 부응하게 되었다.

7개 大學의 教育課程은 美國式의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 즉 教養教育和 單一專攻 研究를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廣義의 教養教育은 文法 高等學校 六年間의 教育課程에서 完成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새로운 대학”은 여러개의 관련 학부를 합하여 한 학교로 만들고 한 학교마다 공통 기초과목을 배정하여 專攻을 위한 기초 또는 相關 과목을 광범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大型 學部制度를 設定하게 되었다. 이 大學에 入學한 학생은 학부 연합 교수들의 통합과목을 이수하고 1학년말에 進급시험을 치르고 두개의 학교에 소속될 수도 있다. 大學教育의 內容 編成은 國家的 要請과 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야 했다. 또 人文科學과 自然科學의 間격을 社會科學이 보완하도록 하여 科目間의 均衡을 맞추게 하였다. 예를 들면 語學 쉐타와 藝術 쉐타가 있어서 최대한 語學을 이수하도록 하고 창작 활동에 참가하게 하고 있다.

3. 뉴질랜드의 大學교육¹⁰⁾

뉴질랜드 대학에서는 社會的 要請으로 教養教育보다 專門教育을 더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大學教育은 技術교육과 職業교육 위주가 特色이었다. 人文系統의 學部는 教職으로 進出하고 科學系統의 學部는 學校나 政府機關 및 研究所 등에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職能인 양성 機能이 압도적으로 강했다. 이로 말미암아 기성사회 속에서의 社會的 地位를 굳히는 면과 社會的 上昇의 流動성을 양립시켜야 하는 二重의 社會役割을 떠맡는 大學教育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 하였다.

- (1) 大學의 門戶開放主義—學校의 入學 認定과 入學試驗의 自由化
- (2) 時間制 또는 校外 學習의 便宜性
- (3) 再試驗制度—특별 시험제, 가합격의 편법, 동일과목의 재이수
- (4) 졸업 기준의 유약성 등이다.

9) 上村達雄 譯(John Lawlor edit), 新しい大學(New University), 時事通信社 1970, pp. 35~101

10) 전계서, pp. 205~254

이러한 결과로 인해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二重의 性格을 지닌 大學의 水準은 높아질 수 없었다. 모든 과정은 직업의 目標에 따라서 方向이 결정되므로 專門科目 이수만으로는 학생의 統合能力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人文系 學部는 1.2학년에 敎養科目을 이수하므로 3학년에 이르러서도 專攻의 入門課程 정도이며 4학년에 이르러서 專攻課程을 이수하게 된다. 그 結果로 非專門性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중퇴자가 늘게 되며 다른 한편 대학의 팽창을 막는 일도 되었다. 學問的 價値는 우수학생의 질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고, 社會的 價値는 조금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 의하여 판단된다. 우수성은 量에 의하여 측정될 수 없고 現代教育의 特色인 專門化를 비교적 높은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면서 사회적 공헌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 대학생은 우수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특히 인문계의 경우는 專門的 分化가 늦어졌으므로 大學院 진학률이 높아지고 海外進出의 傾向도 많아졌다. 英國 세력의 축소와 英國의 市場화에 대한 政策으로 태평양 지역내 힘의 균형에 변동을 가져온 뉴질랜드에서는 外部的 영향이 國內 事情을 더욱 從屬化시키게 되었다. 이 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의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운 나라이므로 現實을 잘 파악하고 國家의 自主的 立場에서 文化的으로 埋沒되지 않는 유일한 方法을 선택하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國際化시키도록 해야 했다. 또한 뉴질랜드의 성격과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人文科學과 社會科學에 절대적 위치를 둘 수 밖에 없었다.

이상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대학교육에 관한 특징과 國家 社會的 要請을 考察하였다. 개발국의 경우 그 나라의 社會變遷이 教育의 目的과 方向 設定에 決定的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개발국의 경우 그 國家의 歷史性과 地域性이 國際的 關係에 따라 左右되거나 영향을 크게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現實的 狀況을 比較해 볼 때 大學教育制度和 內容面에서는 美國의 影響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地方 大學의 特性化 政策은 英國의 “새로운 대학”을 比等케 한다. 또 國際的 位置에서 볼 때는 뉴질랜드와 같은 狀況도 考慮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教育制度나 內容에 있어서 先進國의 그것과 後進國을 완전히 脫피하지 못한 나라의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Ⅲ. 韓國의 敎養教育

1. 六個 基督教大學의 敎養教育 課程 比較¹¹⁾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 진흥회 (Commission for the Advancement of Christian Higher Ed-

11) 이 수덕 외 2명, 기독교대학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 서울 여자대학, 1973

ucation in Asia)의 지원 아래 3個 大學 연구팀(승전대학교, 서울여자대학, 계명대학)의 공동 연구 중 教育課程 部分에서 指適한 教養教育의 內容 分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명대·서강대·서울여대·승전대·연세대·이화여대의 6개 大學의 教養教育의 內容은 大學마다 다소의 差異가 있으나 共通的인 科目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國語(6학점), 英語(6~14), 국민윤리(3~4), 哲學(2~12), 自然科學(2~8), 體育(2~8) 등 여섯 과목이다. 또 종교과목은 명칭이 다양하며 6~12학점을 기독교大學에서 配定하고 있다. 그러나 西江大學校 만은 哲學 學點이 다른 五個大學의 2~3학점보다 6~12학점으로 3倍가 된다. 一般 學生에게는 哲學을 선택하는데 비해 카톨릭 학생에게는 神學을 6학점 더 이수하도록 한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男學生에게는 교련 6학점을 이수시키는 反面, 女學生에게는 체육 또는 보건 학점을 이수시키는 학교도 있다.¹²⁾(표1 참조)

표 1 기독교 각 대학의 교양 필수과목과 학점

과 목		A	B	C	D	E	F
국	어	6	6	6	6	6	6
영	어	8	14	8	14	12	6~8
국	민 윤 리	3	1)	4	4	3	3
철	학	3	6~12 ²⁾	2	3	2	3
문	화	3 ³⁾		3	3	2	3
자	연 과 학	3 ⁴⁾	6 ⁵⁾	2	6	3	3
체	육	남 2 여 8	남 4 여 8	8	4	2	4
보	건					1	
교	련	남 6	남 6		남 6	남 6	
종	교 ⁶⁾	7		12	8	6	6
사	회 과 학	사회학 1 심리학 3 가정학 3	정치학 3 경제학 3 사회학 3	9	여성과사회 2	2	
한	문	3			2	3	4
수	학				6	3	
제	2 의 국 어					6	6
논	리 학			2			
문	학	3					
예	술	음악·미술, 택 1, 3					
		58-64	52-62	49	62	51	44-46

- 1) 정치학으로 대체
- 2) 6학점은 철학, 6학점은 철학과 신학 中 擇 1
- 3)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中 擇 1
- 4) 4학점은 자연과학, 4학점은 화학, 생물, 물리, 수학 中 擇 1
- 5) 수학, 물리, 화학, 생물 中 擇 1
- 6) 과목명칭이 다양함. 예컨대 성경, 종교, 신약, 구약, 기독교 생활철학, 기독교 윤리, 기독교 사상, 기독교 문학 등

12) 전제서, p. 20 참조

표 2 기독교대학 교양교육과정 비교표

과 목	학 교	계 명 대	서 강 대	연 세 대	이 화 여 대	승 전 대	계
국 어		4+1(한문)	6	3	6	4	3~6
영 어		5	12	9	6	6	5~12
기 독 과 목		2	3(신학)*	3	3	6	2~6
국 민 윤 리		2	3	3	2	2	2~3
한 국 사		3	3	3	3	2	2~3
철 학		2	9	} 3~9	3	3 } ※ 6 3 (택 2) 3 }	} 2~9
사 회 계		3	3				
자 연 과 학		3	6				
체 육 · 보 건		1 (남) 7 (여)	2(여 4)	2	2	2	1~7
교 련		6	6	6		6(여자 가정학)	6
교 양 필 수		32	(*43~53) 40~50	32~38	25	33~39	25~53
제 2 외 국 어					6		6
전 공 · 기 초 교 양		9		6~19	9	9	6~19
총 계		41	46~50	38~57	40	43	38~57
참 고 서		계명대학교요람 1977~'78	서강대학교요 람 '78~'80	연세대학교요 람 1978~'80	대학안내 1979	승전대학교요 람 1978~'79	

*43~53은 카톨릭학생 이수시간

*6은 자기 소속 계열학점 제외

上記 6개 基督教大學(서울여자대학 제외)中 5個 大學의 實驗大學 實施後의 教養課程을 比較해 보면 大學校別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同 大學校 內에서도 單科大學別로 學點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¹³⁾(표 2 참조)

이와 같은 차이에서 같은 기독교 대학내에서도 각기 그 大學의 特性을 유지시키려 하는 斷面을 엿볼 수 있다.

1973년도 조사결과 (표 1)에 의하면 교양학점은 44~62 (28~38.8%)학점이었으나 1977년도(표 2) 이후의 결과로 보면 38~57(27~40%)학점으로 配定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졸업 인정학점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인하된 결과로 격차가 많음을 나타낸다. 교양과목 중 기독교 과목이 7~12(4.8~7.5%)학점에서 2~6(1.4~4.3%)학점으로 대폭 引下되었고, 또한 영어 학점도 8~14(5~8.8%)학점에서 5~12(3.6~8.6%)학점으로 引下되었다. 그러나 영어는 최고 8.6퍼센트에서 8.6퍼센트만 引下되어 전체 학점이 引下된 반면, 종교 과목은 최고 7.5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引下된 것으로 보아 기독교 대학의 교육 내용을 종교과목을 통하여 특징 지을 수는 없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 각 대학교 학교요람 1977~80을 참조.

2. 一般大學의 敎養教育 學點 配定 比較

各 大學의 敎養教育 學點 配定은 다음과 같다.¹⁴⁾

建國大	41	(1976년도 실험대학 연구보고서 1977. 文教部 p. 71)
慶北大	54	(" " " p. 116)
高麗大	41	(" " " p. 123)
成均館大	43	(" " " pp. 244~245)
淑明大	40	(" " " p. 266)
全北大	43	(" " " p. 472)
國民大	36	(" " " p. 612)
漢陽大	42	(" " " p. 578)

一般大學의 敎養學點 配定은 36학점에서 54학점의 차이를 각 대학에서 보여 주며 26~38.5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율은 기독교 대학의 27~40퍼센트와 비슷하다. 實驗大學 實施以後의 大學의 敎養教育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표시이다.

實驗大學 실시후 前期 敎養教育 課程(1973~1974)은 대체로 38학점에서 66학점 사이에 분포되어 24~41의 비율을 나타냈으나 1975년도 이후의 實驗大學에서는 36~54학점으로 26~38.5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前期의 24~41에 비교하면 大學別 차이가 폭이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3. 崇田大學校의 敎養教育 課程

崇田大學校에서는 1973년에 문리대와 법경대가 실험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교양교육 과정의 개편과제를 수행하는 데 네가지 전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 기독교 대학의 교육 이념 구현을 위한 6 학점을 교양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일
- (2) 국가관을 위한 과목—국민윤리, 국사, 교련, 체육의 법정과목을 필수학점으로 포함시키는 일
- (3) 졸업 학점 140학점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일
- (4) 대학교육 과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 등이다.

대학교육은 특정된 전문교육을 위한 지식 공급만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善用할 수 있는 人生觀과 世界觀을 갖춘 人材를 배출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14) 文教部刊, 1976년도 實驗大學 研究報告書 1977 참조

표 3 76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안

과 정	대학별		문 리 대				법 경 대				공 대			
	과 목	학년별 학점	1	2	3	4	1	2	3	4	1	2	3	4
			국 가 관	국 민 윤 리 교 련 (가 정) 체 육 국 사	2 6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기 독 교	성 경	6	2	2	2		2	2	2		2	2		2
언어표현	국 어 영 어	4 6	4 4	2			4 6				4 6			
인 문 계	철학 개론 세계 문화사 } 택 1 심리학 개론						3							3
사 회 계	정치학 개론 사회학 개론 } 택 1 경제학 개론	6 택2	3											3
자 연 계	물리 } 택 1 화학 } 생물 }		3				3							
교양선택	세계 문화사 심리학 개론 세계 문학 제 2 외국어(독·불·중) 물리 수학 I. II. 문화 인류학 정치학 개론 사회학 개론 예술 감상 고급 영어 전자 계산		9	6	3			9			9			
	계	43	28	11	4		23	16	4		25	6	8	4

그리하여 교양교육연구위원회에서는 교양교육 과정의 개편안의 모형을 작성하여 교과과정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¹⁵⁾(표 3 참조).

15) 文敎部刊, 1975年度 實驗大學 研究報告書 1976. pp. 338~339

위의 표 3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플 시간의 학점화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7학기 출석에 통과되면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고 졸업 인정의 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Ⅳ. 展望과 提言

長期的인 教育計劃의 觀點에서 볼 때 大學 卒業 直後에는 專門教育을 직접 필요로 하며 社會的 經濟的 成功의 사다리로 삼게 된다. 그러나 社會的 地位 上昇을 바라고 지도적 위치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폭 넓은 교양교육이 전문화된 전공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현명한 決定을 내릴 수 있는가?” “중대한 사항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사회적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등이다.

Edward A. Carlin은 “未來를 위한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for the Future)”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교양교육 및 학부 교과과정의 장래는 고등학교와 大學院 그리고 專門家를 待望하는 社會的 壓력의 균형 여하에 달려 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반 교양교육의 死滅을 초래한다면 學部教育의 죽음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美國教育 全體의 死滅이 될 것이다”.

慶北大學校 교양교육 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目的과 方向이 제시되고 있다.¹⁶⁾ 教養教育은 專攻教育을 준비하는 예비적 入門課程이 아니라 그 探索, 選定과 深化, 綜合化의 課程으로서 전공교육과 긴밀한 相互 보완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종래 교양교육은 全體 大學教育 課程안에서 副次的 준비과정으로서 劣等한 地位를 강요당하여 不當한 輕視 내지 差別을 받으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초래하여 왔다.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教養教育은 교양 교육 과정 없이는 達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獨自의 目的과 使命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교양교육은 진정한 自己恢復과 自己定立의 重大한 課題에 直面하고 있다. 이제는 전문적 지식인이나 技術者에게 豊富한 全人의 一般教育 또는 健全한 社會人으로서의 廣範한 良識을 부여한다는 式의 消極的인 教養教育에서 탈피할 때가 왔다. 새로운 교양교육은 專攻教育과 同等하고 等質的인 嚴正성과 深奧性을 가지는 體系的인 知識의 有機的 傳受過程이 되어야 한다. 相異한 學問領域에 걸쳐 多樣한 基礎概念, 方法論, 思考 등을 다각적으로 理解 習得시키면서 전공교육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深化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大學의 教養教育의 目標과 內容에 대하여 비판한 점을 살펴 보았으나 事實 거의가 傳統的인 體制와 內容을 과감히 개혁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나마 修正 또는 보완하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教育의 本質的 機能에 비추어 볼 때 教養教育의 目的과

16) 文敎部刊, 1976년도 전제서 p. 109

方向性이 再檢討되고 敎育內容도 달라져야 할 때가 된 듯하다.

社會變遷과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한 家庭에서 길러낸 한 人間은 가정의 한 構成員이면서 學校敎育을 통해서 發達段階에 따라 社會化되는 過程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家庭人으로서의 役割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敎育 받아서 現代人의 家庭生活과 家族關係를 合理的으로 營爲하게 되며 平和스러운 感情交流로 醇化시킴으로써 家庭秩序를 유지하게 되며 따라서 人間社會의 基本單位인 家庭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圓滿한 家庭人이 양성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축적되어 온 文化傳統과 遺産을 系統的으로 學習하고 傳受 받을 뿐 아니라 文化를 變容시키고 創造하여 繼承시키는 일은 學校敎育의 基本과제이며 이것이 文化人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인데 곧 大學敎育의 核心이기도 하다.

세째로, 國家的의 支援과 統制를 制度的으로 균형 있게 제공 받아서 國家發展을 위한 各分野에 걸친 지도자를 배출하며 均衡 있게 조화된 敎育을 合理的인 方法으로 할 때 各분야의 지도적 役割을 감당할 수 있는 指導性이 啓發되는 것이다.

네째는, 民族과 社會의 永久한 存續을 위하여 各자의 능력에 맞도록 積極적인 生産을 함으로써 社會가 發展되고, 獨創의인 生産人이 됨으로써 社會秩序가 유지되며 民族의 앞날이 밝아지게 된다.

以上, 本質의인 面에서 敎養敎育의 目標과 機能을 생각하여 보았으나 實際의인 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內容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家族關係—結婚과 家族에 대한 知識은 男女關係와 결혼 준비 문제를 다루므로 合理的인 方法으로 現代 都市生活에 있어서의 남편과 아내의 役割을 적절하게 또 실제적으로 정의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또 가정생활에서 充分한 만족과 휴식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餘暇와 시간 투자의 용의를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2) 哲學領域—民主的 價値觀을 적용하는 過程을 가르치는 일과 價値를 연구하는 일은 모든 大學生들로 하여금 世界와 人間에 대한 現代의 見解와 가치를 一致시키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3) 歷史領域—社會的 및 倫理的 價値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理解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4) 美術·文化領域—靑年들이 自己自身の 목표와 포부를 정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미술과 文學研究는 倫理的 價値의 分析과 發達의 한 方面이 될 수 있다. 審美的 分析力과 判斷力은 倫理的 分析力과 判斷力으로 轉移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現代科學—物理的 自然系의 起源과 發達에 대한 知識, 그리고 生命의 起源과 發達에 대한 知識, 自然系와 生命에 대한 지식에는 想像的이고 藝術的인 表現이 필요하다. 常識的인

宗教教育의 잘못된 結果에서 얻은 世界觀에 따라 생긴 갈등을 體系적으로 理解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宗教와 科學의 關係를 正確히 理解할 수 있도록 기초개념을 定立하게 한다. 물리학·화학·동물학·식물학 등의 分野를 綜合적으로 理解시켜서 現代科學의 生活을 영위하는데 調和的이며 合理的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6) 市民教育—大學 初級程度에서 社會科學 教授를 中心으로 유효하게 進行될 수 있으며 地域社會調查와 奉仕를 통하여 地域의 公民活動計劃에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직접 사회봉사 뿐만 아니라 社會問題 해결을 위하여 社會發展의 기여자가 될 기초를 닦게 한다. 이러한 過程은 自治活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7) 外國語—英語 作文 같은 科目에서 實用文 訓練을 쌓을 수 있으며 工科大學生을 위한 英語는 직업적 흥미와 관련지어 學習內容을 선정하고 문서활동, 문학 감상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넓혀 준다. 특히 青年科學者나 外國 貿易에 종사할 학생에게는 직업적 흥미에 관련지어 가르칠 때 더욱 效果的일 수 있다. 國語와 外國語의 讀解力과 作文力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는 綜合적으로 가르쳐서 言語驅使力이 키워질 때 社會的 役割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世界市民으로서의 資質을 함양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獨創的인 生産的 人間으로서 營爲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 結 論

大學教育은 個人的 要求와 社會的 期待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多樣化하는 것이 그 本質的 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社會變遷이 急激하게 이루어질수록 産業化되고 分化되어 大學教育에 대한 요청도 다양하면서 복잡한 기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大學은 전문적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문연구, 科學者와 學者 育成, 전문적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成人들을 포함한 많은 市民教育 등 社會에 대한 직접적인 責任을 떠맡아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밖에 없이 되었다. 요약하면 大學教育이 社會變遷에 대한 判斷의 척도이며 改革의 역할을 떠맡게 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大學教育은 專門的 職業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결과 한 個人의 人格完成에 대한 관심도를 망각하게 되고, 個人의 人格發達過程에 있어서의 갈등 상태는 교육의 대상이 못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大學教育의 主要機能은 첫째 個人完成이요, 둘째는 文化維持와 發展이며, 세째가 기술발달의 촉진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建學精神에 立脚하여 青年들과 成人들의 要求充足과 社會的 적용 판단을 통합시키기 위한 教育內容으로 부단히 개편되고 合理的 節次와 方法으로 實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機能을 다하게 될 때 바람직한 社會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心理的 安定과 精神的

滿足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대학교 요람, (계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숭전대) 1977~80
2. 文敎部刊, 1975년도 實驗大學 研究報告書, 1976
3. " 1976년도 " " 1977
4. 上村達雄역 (John Lawlor edit 1968), 新しい大學, 東京: 時事通信社, 1970.
5. 李洙德의, 한국 기독교 대학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여자대학, 1973
6. 정 범모의, 전국 대학 교양부장 협의회 강연 및 회의록
7. 정 식영 · 유 태영 공역 (Ole Sand et. al.), 近代化를 위한 教育計劃, 서울: 재동문화사, 1967
8. 週刊朝鮮, 하바드大學의 教養革命, No, 522, 1979, 1. 28
9. Association for General and Liberal Studies, Common Goals of Liberal and General Education, Michigan: East Lansing; 1962
10. Butts, R · Freeman and Cremin, A. Lawrence, A History of Education in American Cultu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 1953
11. Griswold, A. Whitney, Liberal Education and the Democratic Ideal and Other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61
12. Minogue, K. R, The Concept of a University,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13. Niblett, W. R, ed., Higher Education: demand and response, San Francisco: Jossey-Baso Inc., 1970
14. Rice, A. K, The Modern Univers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70
15. Rosecrance, F. C, The American College and Its Teachers, New York: The Macmilan Company, 1962